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On the Convention of Korean Punctuation Marks Typesetting

김강수 Kangsoo Kim

한글텍사용자그룹 karnes@ktug.or.kr

ABSTRACT 한글 문헌의 조판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문장부호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한중일 가운데 우리 문헌만이 문장부호에 영문자 부호를 차용하여 쓰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글 폰트와 영문자 폰트의 베이 스텀라인의 불일치, 디자인 컨셉의 불일치, 그리고 문장부호의 시각적 효과의 상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아름다운 한글 문헌의 조판을 위해서 더 나은 문장부호 조판 방식이 없을 것인지 모색해본다.

1 한글 문헌의 조판상의 특징

한글 문헌을 조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글 문자를 식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글의 기서법은 한글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양한 문자들이 함께 식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국어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자는 전통적으로 우리 문헌의 중심 문자였고, 지금은 그 중요도가 많이 낮아져서 한글에 대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중요한 기록 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학술적 문헌에 있어서는 영문자 등 라틴문자를 섞어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

한중일 삼국의 문헌 조판 양식을 비교해보건대, 우리 문헌의 조판상의 특이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이픈(hyphen) 없이 모든 문자 앞에서 행나눔(line-breaking)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점이 될 것이다.

1. 띄어쓰기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글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나눔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진다.²
2. 문장부호를 영문자 폰트로부터 차용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문장부호도 자체의 것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글은 대체로 영문자 폰트에 들어 있는 문장부호를

1.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영문자가 잘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조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문자 또는 그 일부는 우리 문헌 식자에 필수적이다.

2. 띄어쓰기는 1933년 이후 표준적인 표기법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1933년 이전 표기법에서는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어절 경계를 시각적으로 더 분명히 파악하게 되어 독서 속도와 효율성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오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를 섞어쓰므로써 어절 경계를 시각화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띄어쓰기는 한글 전용을 가능하게 한 배경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 결과 하나의 문서에 한글과 한자는 한글 폰트로, 영문, 숫자, 문장부호는 영문자 폰트로 식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3. 한글의 경우 자소 결합에 의해 문자를 형성하지만 현재의 조판 관행은 결합된 완성형 문자 하나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문자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약 100자 안팎의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일본어보다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중국글자 또는 한자에 더 유사하고, 문자코드의 처리나 폰트 디자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 즉 문장부호이다. 먼저 문장부호 조판의 일반적 관행을 살펴보고 몇 가지 문장부호의 적절한 조판 방식을 모색해보는 순서로 글을 진행한다.

2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과 그 문제점

세로쓰기 위주의 활판 인쇄 시기에는 독자적인 문장부호가 조판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로쓰기가 정착하고 조판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문장부호와 숫자를 영문 폰트로부터 빌어쓰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한 듯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저작활동에 사용되는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경우에도 문장부호는 ASCII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입력의 편의성 문제가 있다. 표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경우 한글과 영문자를 섞어써야 하는 한국 문헌의 특성상 영문/한글 전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결과, 한글 특유의 문장부호들은 키보드로부터 바로 입력할 수 없고 (윈도 입력기의 경우) 한자 키를 누르고 선택하거나, (아래아한글의 경우) Ctrl+F10을 누르고 “약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하도록 설계되었다. 문장부호 하나를 입력하기 위해 최소한 대여섯번의 키를 눌러야 한다는 것은 문서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단순한 한/영 전환에 의하여 문장부호를 (유사한) ASCII 문자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한글 폰트에 들어 있는 한글식 문장부호 자체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따옴표와 같은 경우, 일부 폰트에는 반각으로 디자인된 부호가 들어 있어 그 앞에 보통 크기의 공백을 주어야 하지만 어떤 폰트에는 전각 디자인된 따옴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따옴표 앞의 공백을 없애거나 심지어 닫는 따옴표 뒤에 마이너스 공백을 주어야만 조판사가 원하는 간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글 폰트에 들어 있는 한글식 문장부호에 표준이 없고 조판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 사용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 T_EX은 처음부터 영문자 문장부호를 채택하여 조판하는 관행을 발전시켜왔다. T_EX의 매크로 이름이 거의 영문자이다보니 한글 입력 상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익숙한 영문자 문장부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발전해온 것이다. 수많은 문헌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 그것을 한글식 문장부호로 교

채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은 셈이다. 그러나 영문자 문장부호는 그 나름의 폰트 디자인 맥락이 있는 것으로 한글 문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2.1 세 가지 샘플

문장부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1. 한글식 전각 문장부호를 소스(source)에서 사용한 경우.
2. 문장부호는 ASCII 코드로 입력되어 있으나 그 식자를 한글 폰트에 있는 ASCII 문자로 하는 경우.
3. 문장부호가 ASCII 코드로 입력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식자는 영문자의 폰트를 빌려와서 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는 소스 수준에서 문장부호가 모두 한글식 전각 코드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입력된 소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Xe_{La}TeX 또는 Lambda로 조판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한글 영역과 영문·숫자·부호 영역을 모두 하나의 폰트로 조판한다. 세번째 경우는 현재의 hangul-ucs와 같이 코드 영역을 분리하여 한글과 한자 등은 한글 폰트로 식자하고 영문과 숫자 및 문장부호는 영문자 폰트로 조판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논의할 것은 이 세번째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는 입력의 곤란함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두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은 한글 폰트 내의 영문자 영역의 디자인이 과연 영문 전용 폰트에 필적할 만한 품위와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폰트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문장부호 식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조판 결과를 그림 1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 예는 일반적인 TeX 코딩 관행에 따라 입력된 소스를 한글 폰트 자체의 문장부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식자한 것이다. 한글 폰트 내의 영문자 및 문장부호 부분에 리저처(ligature)와 커닝(kerning)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영문이 출현하는 경우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오른쪽 예는 영문과 문장부호를 TeX의 Computer Modern 글꼴에서 가져와 식자한 것이다.

그림 2는 둘 다 한컴바탕 글꼴로 식자하였는데, 비교를 위해 그림 1을 왼쪽에 옮겨 놓았다. 오른쪽 것은 소스 수준의 입력 자체를 모두 (전각) 한글 문장부호로 한 것이다. 실제 이렇게 입력된 예는 찾을 수 없으나, 모든 문장부호가 전각인 데서 오는 어색함이 쉽게 파악된다.

2.2 전각과 반각

일본 문자의 경우, 모든 문자들은 전각(全角; zengaku width)을 기준으로 디자인된다. 일본어 텍인 pTeX의 경우 아예 새로운 길이 단위인 zw를 정의하여 쓰는데, 이것은 일본

“우리, 가보지 않으려?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배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 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한컴바탕 한글 폰트 문장부호

“우리, 가보지 않으려?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배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윤명조 CM의 문장부호 차용

그림 1. 문장부호 차용 예시

문자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7]. 괄호나 따옴표와 같은 문장부호들도 전각으로 디자인하되, 디자인 영역 내에 약간의 공백을 비움으로써 마치 공백을 약간 준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부 폰트를 제외하면 한글 폰트에는 대부분 전각 한글식 문장부호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 폭이 일률적으로 전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따옴표의 경우와 괄호 및 꺾쇠들은 “3분물 전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띄어쓰기 공백이 없을 때는 적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띄어쓰기 공백에 약 반각 정도의 추가 공백이 더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조판에는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림 2의 오른쪽 조판 결과를 보면 자명하다.

은 바탕 글꼴과 같이 한글식 괄호 등에 반각을 부여하고 있는 폰트의 경우에는 사정이 나은 편이나 3분물 반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글자의 폭(width)에 대하여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어 조판하기 나쁘다. 여는 괄호는 오른쪽으로, 닫는 괄호는 왼쪽으로 치우쳐서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폰트에 따라 전각과 반각이 뒤섞여 있고 일률적인 기준이

“우리, 가보지 않으려?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배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 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 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난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한컴바탕 한글 폰트 문장부호

“우리, 가보지 않으려?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배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 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 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난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문장부호 한글 전각 입력

그림 2. 문장부호 차용 예시

없다보니 한글식 문장부호를 일관되게 TeX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괄호나 따옴표 등의 큰 문장부호들이 1em = 1000으로 디자인된 폰트에서 550 정도의 폭으로, 그리고 자면은 그 가운데 350 내지 400 정도를 차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면 조판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3 베이스라인

영문 폰트의 문장부호를 빌어쓰는 경우 치명적인 문제는 베이스라인(baseline)의 불일치이다. 한글 폰트들은 대부분 영문 폰트의 베이스라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글 글자들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반면, 영문자는 특히 소문자들이 베이스라인 아래 위로 걸치도록 되어 있어 영문자의 베이스라인과 한글 글자를 일치시켜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끼리끼리 모인다.

Boys! 소년이여!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누구요? Who's there?

그림 3. 영문자와 한글의 베이스라인

그림 3에서 보인 대로,³ 영문 폰트에서 가져온 마침표(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 문장 부호는 모두 베이스라인 위쪽 높이만 이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한글의 베이스라인과 영문 폰트의 베이스라인을 비교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문장부호들이 한글에 비교하여 위쪽으로 치우쳐 식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글의 자면을 키우고 영문 베이스라인 대비 깊이를 조금 얇게 잡으면 적어도 문장부호의 높이에서 오는 어색함은 조금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는 폰트 디자인의 문제이나, 영문 문장부호의 차용을 전제로 한글 폰트를 디자인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4 두께

영문 폰트 문장부호는 영문자에 맞추어서 디자인되어 있다. 특히 느낌표와 같은 부호의 경우, 우리 글에서는 “강조”의 느낌이 나도록 식자되어야 하는데 영문 폰트 느낌표를 그대로 가져다쓰는 경우 시각적으로 전혀 강조의 느낌이 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래 느낌표는 전각물이나, 전각보다는 조금 폭이 좁은 것이 좋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 글자와 약간의 공백(3분각)이 있도록 조판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글 폰트의 전각물 느낌표를 그대로 쓰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밖의 문장부호들, 예컨대 온점의 경우에도 영문 폰트에 따라 두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글 글자들에 비하여 약한 느낌이 난다. 그 까닭은 영문 소문자들의 크기와 자면 밀도가 한글보다 훨씬 작기 때문일 것이다.

2.5 간격

영문에서 모든 괄호는 그 앞에 공백(space)을 둔다 [8]. 그러나 우리 글에서는 이러한 공백이 없다. 종래의 활판 인쇄 관행에서는 활자 자체의 폭과 여백에 의하여 3분물 2분각을 쓰게 되면 반각 폭을 차지하면서 괄호 자체는 1/3 전각으로 식자되어 적절한 공백을 넣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문 폰트 괄호를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공백이 전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앞 글자와 너무 붙어짐으로써 조판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큰” 문장부호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하다.

활판 인쇄에서 괄호는 크게 전각물, 2분각, 3분각 세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분각의 경우는 3분물, 2분물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영문 폰트의

3. 윤명조 서체와 Palatino Linotype의 베이스라인을 비교한 것으로, 그림을 마련한 이주호 님께 감사드린다.

괄호를 쓰는 것은 3분각 3분물을 사용하는 결과와 유사하다. 3분각 3분물의 괄호를 조판할 때는 공백으로 괄호 앞을 채우는 것이 관행이었다. 즉, 괄호 앞에는 “조판상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

이 공백의 크기는 예전 용어로 말해서 “3분각 2분물”을 쓰거나, “3분각 3분물”을 쓰되 그 앞에 ¼전각보다 작은, 약 0.23em 정도의 간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종래의 조판 매뉴얼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많은 책에서 구현하고 있는 값이다 [6, p.796].

TeX 소스 작성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괄호 앞에 공백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미세한(4분보다 작은) 공백을 누가 구현해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조판 소프트웨어의 책임이다.

2.6 디자인

영문 폰트는 어떤 것이든 글꼴 가족(font family)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여러 개의 폰트들이 하나의 글꼴 가족을 이루고 디자인 컨셉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문 폰트의 극히 일부만을 가져다 쓰게 된다면, 그 디자인 컨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글 폰트와의 어울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설령 우연히 비교적 어울리는 폰트의 결합(조합)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서체의 이미지와 디자인에 알맞은 영문자 서체의 문장부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 설정된 문제가 될 것이다.⁴

3 몇 가지 문장부호의 조판 결과 비교

이 절에서는 영문 폰트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조판하되, 한글과 어울리게 하려면 그 위치, 크기, 간격이 어떠해야 할지 몇 가지 시험과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한글은 이 문서의 기본 폰트인 윤명조이고 영문은 Palatino이다. 여기서 시도하는 것은 실제 실용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적용할 지침이라기보다는, 문장부호 자체가 어떻게 식자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 구현이 실제 가능한가의 여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⁵

3.1 온점과 반점

마침표로 쓰이는 온점과 쉼표로 쓰이는 반점을 영문 폰트에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점이 영문자의 베이스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글 글자 높이 기준으로 조금 위에 위치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점의 크기가 한글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크기의 문제는 영문 폰트를 사용하는 한 쉽게

4. 한글 서체의 디자인과 가독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4] 이래로 한글 자체의 식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TeX을 조판도구로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글 서체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2, 3] 역시 폰트 디자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5.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TeX 한글 식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을 참고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직 위치 문제만 비교해보기로 한다. 다음 조판 결과를 비교해보자.

이 온점과 반점,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1)

```
\newcommand\HPeriod{\lower.15ex\hbox{.}}
\newcommand\HComma{\lower.15ex\hbox{,}}
이 온점과 반점\HComma{}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HPeriod
```

이 온점과 반점,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2)

(1)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식자한 것이고, (2)는 온점을 조금(0.15ex) 내려준 것이다. 이 문서의 기본 폰트에서 이 정도 내려줌으로써 시각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문장 말미가 “다”와 같이 ‘ㅏ’로 끝나는 글자가 많은 우리 문헌에서 마침표 온점의 수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의 베이스라인 디자인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영문 폰트와 조합해서 쓰는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3.2 괄호

괄호(括弧)라고 부르는 부호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본문의 설명 괄호만을 문제삼으려 한다. 괄호 안의 내용은 본문에 대해서 보충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조판 관행이 괄호 안의 폰트 크기를 한 급수 줄여주는 것이다.⁶

괄호를 영문폰트에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괄호의 베이스라인이 한글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⁷ 다른 하나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앞뒤에 전혀 간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글 간격단위 hu를 $1/16 = 0.0625em$ 으로 정의하자.⁸ 그리고 괄호 자체의 베이스라인을 고려하여 괄호의 수직 위치를 조금 올리거나 내려준다. 올리거나 내리는 정도는 영문 및 한글 폰트의 디자인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
\newcommand\hparen[1]{%
  \hskip3\hu\raise.05ex\hbox{({}%
  {\small#1}%
  \raise.05ex\hbox{)}}\hskip3\hu
}
```

숫자\hparen{0에서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를 보라

숫자(0에서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를 보라

다음 문장은 이러한 조작을 하지 않고 입력된 원본을 그대로 처리한 것이다.

숫자(0에서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를 보라. (비교)

6. 물론 인용(\citep)이나 단순 정보의 추가를 위한 괄호 안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다.
7. 영문 폰트의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
8. 한글 간격단위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반각 계열

국어·수학·사회·과학 (은 바탕)
 국어·수학·사회·과학 (윈도 바탕)

전각 계열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윤명조 120)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한겨레결체)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휴먼엣제)

그림 4. 가운데점

이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행나눔이 일어나는 위치에서의 처리가 있다. 여는 괄호의 앞에 약간의 공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백은 행의 첫머리에 나타나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닫는 괄호의 뒤에도 공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백이 행의 끝에서 나타나서도 안된다. 위의 `\hskip`은 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만약 폰트 디자인상 괄호의 앞뒤에 약간씩의 여백을 두고 있다면 그 처리가 아주 어려워진다.⁹ 이 문제는 한글식 괄호로 조판하려 할 때 부딪치게 된다.

3.3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
\newcommand\ExclaMark{\hskip4\hu\lower.2ex\hbox{!}}
따뜻한 봄이다\ExclaMark\hskip3\hu''
```

따뜻한 봄이다!”

물음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물음표는 느낌표보다 가로폭이 크므로 그만큼 간격을 줄여준다(`3\hu`).

따뜻한 봄이냐?

3.4 가운데점

가운데점은 일반적으로 `[U+00B7](·)`로 직접 입력한다. 폰트에 따라 가운데점이 반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 차이를 그림 4에 보였다.

가운데점의 식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위에 보인 대로 그것을 전각으로 할 것인가, 반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간격 문제이며,¹⁰ 다른 하나는 가운데점의

9. 여는 괄호의 다음과 닫는 괄호의 앞에서 행나눔이 일어나서는 아니되는 “금칙처리”는 당연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10. 윈도 기본 폰트의 경우, 예컨대 ‘바탕’은 문장부호가 반각이고 ‘바탕체’는 전각이다.

수직 위치에 관련된 것이다. 전통 활자 조판에서 가운데점은 전각물이었다. 다만 “8·15 해방”과 같은 용례에서 일부 반각물을 허용하였다. 생각건대 현재의 반각물의 간격은 너무 좁으며 가운데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가운데점 자체는 반각으로 취급하되 그 양쪽에 약간의 공백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허용폭은 2hu 내외가 어떠한가 제안한다. 양편에 4hu와 8hu를 합하면 약 12hu로서 전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반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모양으로 조판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운데점은 행두금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행미에서도 닫는 쪽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memhantul 패키지 [9]에서는 `\hfontfamilynameprefix`라는 매크로를 두어 현재 기본 문장부호의 식자가 기본 글꼴인 은글꼴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그리고 `\cntrdot`라는 매크로는 가운데점 앞뒤에 각각 전각과 반각을 가지는 서로 다른 폰트들이 사용된 경우 전후 간격에 변동을 주도록 정의되었다.¹¹

3.5 전처리를 통한 한글 문장부호의 조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글 문장부호에 약간의 조작을 가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입력된 소스의 한글 다음에 나오는 문장부호를 매크로 명령으로 일괄변경하는 간단한 Perl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이 스크립트로 입력 소스를 전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판한 것과, 이러한 전처리를 가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해본다. 30쪽의 그림 6이 그 결과이다. 예시문장으로는 황순원의 《소나기》 일부를 사용하였다.

4 한글 간격 단위의 제안

T_EX의 mu (math unit)은 1/18em이다. 기본 간격을 주는 `\thinspace`와 `\medspace`는 mu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간격단위를 한글 조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한글 조판에서 간격은 “공목”에 의해 제어되었다. 공목은 전각, 2분각, 3분각, 4분각, 6분각, 8분각 등이 있었으며 미세간격과 양끝맞추기(justification)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라틴문자는 (의도적으로 고정폭으로 디자인된 폰트를 제외하면) 하나하나의 문자가 모두 가변폭이며, 문자마다의 폭이 폰트 디자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 글자는 한글만을 놓고 볼 때, 동일한 폭을 기준으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흔하다.¹² 대체로 한글 한 글자는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폭을 갖는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글자의 경우는 한 개 문자의 폭을 “전각”으로 보고, 한 행을 전각 기준으로 조판한다.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조판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장은 문자의 폭과 더불어 띄어쓰기의 간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각만을 기준으로 조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장부호를 영문자 폰트에서 빌어오는 경우

11. 최근 dhucs에서 `\cntrdot` 명령을 채용하여 가운데점 식자 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memhantul의 이전 정의는 무의미해졌으나, 문장부호 식자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었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한다.

12. 이것이 한글 폰트가 고정폭 글꼴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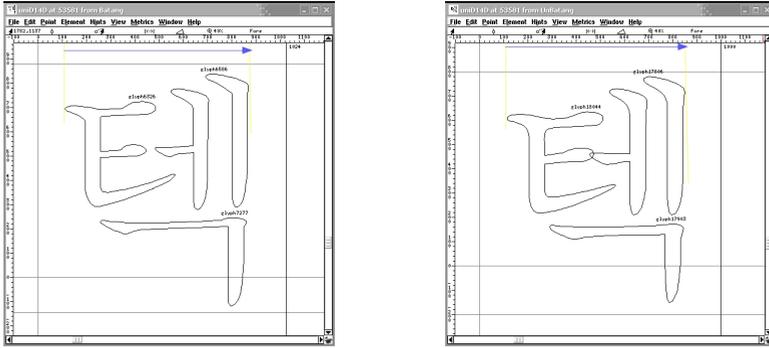


그림 5. 자면의 폭: 윈도우바탕(왼쪽)과 은바탕(오른쪽)

는 항상 다국어 조판이 되는 셈이며, 그러하지 않더라도 문장부호가 문자와 동일한 폭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공백의 폭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다. 이것을 hu (hangul¹³ unit)라고 부르기로 하자. 우선 hu를 길이 매크로(\hu)로 정의한다.¹⁴ 우리 문헌의 조판에도 “전각”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의 전각을 편의상 jw라고 부르기로 하자. 공목은 대체로 3분 계열과 4분 계열이 있다. 3분 계열과 4분 계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값은 1/24jw를 1hu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앞서 1/16jw를 1hu로 정의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경우 mu 값과 더 가까워서 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hu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1hu = 1/16jw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4.1 전각의 값

전각 1jw의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폰트 디자인에 달렸다. 본문 글꼴을 예로 든다면, 산돌명조와 같은 경우는 자면의 폭이 좁은 편이고, 한양 바탕체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짙 차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폰트 디자인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각의 폰트마다 자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hangul-ucs의 기본 글꼴인 은바탕에 대하여, dhucs의 기본 자간 -0.0852em만큼 뺀 값 0.9148em을 1jw로 정의하자. 이 제안에 따르면 1hu = 1/16jw = 0.057175em이 된다.

4.2 한글 간격 단위를 이용한 간격의 제어

문장부호와 관련하여 한글 문장의 간격을 hu 단위로 제어하는 방법을 표 1과 같이 제안

13.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han-geul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관행적인 표기인 hangul로 쓰기로 한다.

14. 일본어 pTeX에서 zw는 길이 매크로가 아니라 길이 단위이다. 즉 em, pt 등과 똑같이 정의되어 있다. hu를 길이 단위로 정의하려면 새로운 TeX 엔진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한글 문장부호의 간격 제안

부호	간격	부호	간격
괄호의 앞과 뒤	3-4hu	느낌표의 앞	4hu
물음표의 앞	3hu	문장부호 뒤의 닫는 따옴표	3hu
줄표 시작 전	1hu	줄표 끝	1hu
가운뎃점의 앞뒤	2hu	영문자 뒤	2-3hu
단항수식의 뒤	2hu	다항수식의 뒤	3hu

한다. 예를 들어, 종래의 4분각은 3 내지 4hu, 그리고 3분각은 5hu에 대응한다.

5 결론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관행적 입력체계를 고수하는 경우 T_EX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먼저, 간격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math unit`을 기준으로 3/18, 4/18과 같이 설정된 `\thinspace` 등의 간격 매크로는 한글 문장부호의 식자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로, 괄호의 처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명(書名)을 표시하기 위한 꺾쇠, 관행상 한 급수 낮아지는 작은 글자가 들어가는 설명 괄호 등은 우리 글 조판에서 항용 쓰이는 것들이므로 이것을 표준적인 매크로로 구현해두면 좋을 것이다.

셋째, 숫자 및 문장부호와 한글 사이의 간격은 T_EX 엔진 또는 매크로 수준에서 자동화해주어야 한다. 최근 수식, 숫자, 괄호와의 자동 간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시도가 `dhuc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적정값은 앞서 말한 hu를 이용하여 정의하면 편리할 것이다. 매크로 수준에서 이 작업을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불합리한 면도 있으므로 T_EX 엔진 자체에 한글과 문장부호의 처리를 위한 원시명령(`primitive`)를 갖춘 “한글 T_EX” 시스템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¹⁵

넷째, 한글 문장부호를 영문자의 ASCII 문자로 대응하는 경우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의 조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 예를 들어 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수직 위치, 영문 문장부호의 두께와 폭을 감안한 간격의 조절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글 폰트가 워낙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영문자의 문장부호를 쓰는 것이 한글 식자 상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는 꼭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X_YT_EX에 의하여 T_EX 폰트 사용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경우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한글 폰트로 영문자와 문장부호, 숫자 및 한글과 한자를 모두 식자하여야 한다. X_YT_EX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한글 문헌을 조판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글 폰트 내부에 있는 영문자와 숫자의 디자인이

15. `hangul-ucs`의 공저자인 김도현은 이러한 간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문자”를 제어하는 원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

만족할 만해져야 할 뿐 아니라, 문장부호도 더 세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문장부호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수많은 소스가 그렇게 입력되었고, 당분간 이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사실상 전각물 한글 문장부호들은 표준 코드로만 정의되어 있을 뿐 사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글 문장에 적합한 문장부호의 식자 방식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한글 폰트의 디자인과 개선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김강수, 『 \LaTeX 으로 책 만들기』, (근간).
2. 김창수, 출판인의 한글 서체 선택 이유와 서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4.
3.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0.
4. 이기성, 출판 디자인의 정의와 한글 본문체 폰트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논총』 2권 (1999), 741-793.
5. 이승후, 국어 문장부호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3.
6. 이종운, 『도서편집총람』, 범우사, 1991.
7. 奥村晴彦, 『 $\text{\LaTeX}2_{\epsilon}$ (ラテック・ツー・イー) 美文書作成入門』, 改訂第3版, 技術評論社, 2004.
8. Chicago Editorial Staff, *The Chicago Manual of Style: The Essential Guide for Writers, Editors, and Publishers*, 14th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9. 김강수(역), memoir 사용자 설명서. <http://faq.ktug.or.kr/faq/MemhangulClass>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영문 문장부호를 그대로 사용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영문 문장부호를 조절해서 사용

그림 6. 문장부호 조판의 실례